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홍

2008년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신년 가족연합예배 2008년 1월 1일(화), 오전 9시~11시

2008년! 새 아침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다." (창 210장, 21세기찬송가)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개역개정성경)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한 신년예배가 2008년 1월 1일, 오전 9시~11시에 각각 있으며 예배 시에 필요한 말씀과 찬양곡이 수록된 책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예배 후 모든 성도님들의 구호 제창과 교회의 중직자들이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성경과 새찬송가로 시작하기에 더욱 새로운 2008년의 첫 예배에 온 가족이 나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월 6일) 1~5부 예배 시에 2008년 제1차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보, 찬양예배 시 제6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세례교인은 모두 참석 바람)

신년예배 메시지 요약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1)

두려움은 모든 면에서 힘을 잃게 한다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의 새해를 망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두려움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찾아왔습니다. (창 3:10) 두려움은 인생에서 도전과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기쁨 대신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창 12:1~2)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이 말씀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단 10:19)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가 약속을 하여 주시는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시 121:2)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오래 전에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1:2)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눅 18:27)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눅 1:37)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2008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요" (창 15:1)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신 33:29; 시 33:20, 84:1)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엡 6:16) 단지 몇 개가 아닙니다. 많은 불화살도 아닙니다.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 30:5)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들에게는 더 확실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시는 축복을 원했습니다. (창 14:22~23)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마 1:1)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 6:37) 이것이야말로 참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모든 것을 초월한 평안을 주십니다. (마 11:28~30)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사 41:10)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영원토록 영향을 끼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처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두려움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후회 상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월 교회 일정

1월(화) 신년예배(오전 9~11시) 청년부 겨울수련회	14일(월) 중등1·2·3부 겨울수련회(15일까지)
4일(금) 유년·초등·소년부 겨울성경학교	16일(수) 총회 교회주변 전도 (수요1부예배 후, 여전도회)
6일(주) 제1차 성찬식(주말1~5부예배 후) 제5차 CMC 혼련(1찬양예배 후)	19일(토) 총회 교회주변 전도 (14:00, 남친도회)
7일(월) 고등부 겨울수련회(8일까지)	22일(화) 영아·유아·유치부 겨울성경학교
9일(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26일(토) 제5차 CMC 직부훈련(14:00)
13일(주) 제5차 CMC 혼련2(찬양예배 후)	27일(주) 선교주일
	29일(화) 대학부 겨울수련회(3일까지)

LORD'S TABLE

⁽²⁶⁾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²⁷⁾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²⁸⁾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²⁹⁾But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Matthew 26:26-29)

Jesus' last supper in this world took place on Passover. As His time of death neared, He said to His disciples, "You know that after two days the Passover is coming, and the Son of Man is to be handed over for crucifixion." (Mt. 26:2) Jesus alerted His disciples to the shortness of time concerning His death. When His disciples asked Him where He wanted to eat the Passover, He told them,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and say to him, 'The teacher says, "My time is near; I am to keep the Passover at your house with My disciples."' (Mt. 26:18) His mind was heavy, and Jesus wanted to prepare His disciples for the coming cross. As they shared His last Passover, Jesus also shared with them His first Communion,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New Covenant. This first Communion from Jesus was not meant just for His disciples, but for every Christian. The things He taught His disciples during this special meal have very serious meaning for you and me at each communion service we partake. Let us remember the important lessons that Jesus taught His disciples about Communion.

At Communion, we remember Jesus' body,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v. 26) Some may wonder about that statement, but Luke 22:19 clears up any mystery,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The bread is a symbol to remind us of the sacrifice of Christ's body. What should we remember about His sacrificial body at Communion? God is unlimited, but Christ's body had limitations. He chose to restrict His body,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Phil. 2:5-7) Christ chose to show His love in a human body, humbling Himself to the point of death on a cross. His body saves us from eternal death, which is why He endured the pain of crucifixion. We should remember the love, suffering, and endurance of His body.

At Communion, we remember Jesus' blood,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vv. 27-28) Like the bread, the cup is a memorial symbol of Christ's blood. Christ's blood was shed to pay for our sins,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through Him." (Rom. 5:9) 1 Peter 1:18-19 further state,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like silver or gold from your futile way of life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Only Christ's blood can cleanse us from sin,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Many people think that money, fame, or good deeds can wash away sin, but this is clearly not possible. Revelation 1:5 tells us,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releas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Remembering that Christ's blood makes us holy and able to have communion with God, we increase our love for Him.

At Communion, we remember Christ's coming new kingdom, "But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v. 29) Can you imagine this wonderful celebration in heaven? Can you picture seeing Jesus face to face? Can you envision not needing faith because you can see? Right now, our spirits can rejoice within us because Christ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be with Him forever in heaven. Although He waits to partake of this Communion, He asks us not to wait, but to remember His sacrificial new covenant.

My dear friend, Communion is a time to search your heart and confess your sins. It is a time to look in two directions, back to the cross and forward to the Kingdom. When you remember Christ's cross, you become aware of the cost of your sins. When you remember Christ's kingdom, you become aware of your future happiness with Him in heaven. Have you responded to the love that makes forgiveness possible? Will you be with Christ in His wonderful Kingdom? 

다음 주일 설교

주의 만찬

⁽²⁶⁾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²⁷⁾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²⁸⁾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²⁹⁾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26~29, 개역개정성경)



김성원 목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마 26:2)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디에서 예비해야 할지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마 26:18)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압박한 십자가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성만찬을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곧 새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성만찬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 특별한 식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26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19은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밝혀 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27절) 떡은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대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 2:5~7)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 보여 주신 사랑과 고통,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

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27~28절) 떡과 마찬가지로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롬 5:9) 베드로전서 1:18~19은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또는 선행으로 죄를 깨끗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5만 할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기억하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곧 임하실 그리스도의 새 왕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29절) 천국에서 이 영광스러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놀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성만찬을 나누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만찬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과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 값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될 미래의 행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셨습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

금요찬양집회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바리새인 니고데모

(요한복음 3:9~12)

한자 니고데모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대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사순절이 되기까지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심각한 대화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공허한 종교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와 교회와 각 개인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다.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거나 정해진 시간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으며,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기를 원한다. (롬 6:5~8)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 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허다하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다. (딤후 3:16~17; 베후 1:20~21)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시 119:18; 장 2:4~6)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과 배경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셨다. (요 3:2~3)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유체가 태어나는 과정을 알았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거듭남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신학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

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시 태어남' (Born again)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는 왜 한밤 중에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 왔는가? 유대교에 대한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인가? 니고데모는 매우 철저히하게 율법에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러나 아주 경건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다. 그와는 매우 대조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다. (요 4:17~18) 모든 면에서 그녀는 니고데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요 4:25~26, 28~30) 이처럼 복음의 목적은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한사람 한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요 4:42) 이 복음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종교 그룹 중 하나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임하였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교를 인간의 법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거저 받는다는 은총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인간들이야말로 대단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른다. 반면에 악의 산물도 많이 만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하고 비열한 것은 종교이다. (왕하 17:28~33) 이 종교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 만한 크기로 썩어 내리고 인간이 관리할 수 있을만한 정도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스트레스를 풀며 안위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만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왕 2:8, 18~19)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구원자도 없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죄 의식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렘 7:3~4, 8:10~11, 16~17)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역시 바리새인의 종교 못지않게 망명되어졌다. (고전 3:3~4) 기독교가 죽음의 고통 앞에서 어떠한 소망을 주는가? 진정한 믿음의 평화와 소망을 주는 대답이 되고 있는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골 2:20) 아멘.

9 아기 예수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히 1:1~3)

히브리서 1:1~3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말귀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다. 예수님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지만 이 아기는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히 2:17) 말귀유의 아기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대제사장이셨다.

9 즐거움 (사 9:2~7)

크리스마스는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이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역사가 없다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처음과 끝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뿐 수 있다.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자. (사 9:2, 6~7)

10 하기 싫은 사역 (딤후 2:11~14)

디도서는 디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 베들레헴의 말귀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은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며 가르쳐 주신다. (딤후 2:12~13) 하기 싫은 사역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말귀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골 3:1~4)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계 22:20)

11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시 85:8)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약속을 생각해야 한다. '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있는가?' 평화는 샬롬(Shalom)이다. 샬롬은 건전한 상태, 풍성하고 하나도 일치된 상태이다.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시 85:8; 눅 19:42) 크리스마일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뿐,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궁극적인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그 말씀은 곧 평화이다.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2)

(7월 27일부대 메그요찬양집회 때에 선포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요약했습니디.)

10 너희를 위하여 (눅 2:11)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크리스마스는 요동치는 우리의 삶에 생명의 활력소이다. (요 1:9~12)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자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사 9:6~7)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아는 날이다. (갈 4:4)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10 어둠속에 빛 (요 1:9)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 (골 1:15~17)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현존하시는 분이 되셨다. (사 9:6)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천한 땅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우리 집, 우리 이웃에게로 오셨다. 참으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마 1:18, 21, 24~25)

11 크리스마스는 실존적이다 (마 2:11)

발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았은 동방박사들로 인해 헤롯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놀랐지만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베들레헴까지 신앙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고 결국 크리스마스는 그들에게 실존이 되었다.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바치는 기쁨을 누렸다. 실존적인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한다.

11 성경은 크리스마스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신다

성경은 크리스마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태초(요 1:1)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경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주받은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다. (요 1:14; 히 1:1~3)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마 1:22~23)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참 소망과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다. (눅 2:12~14)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자.

말씀과 섬김의 제1교구위원회



황인만
(장로, 제1교구위원장)

할렐루야! 2007년 한 해 동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5대 목표를 감당케 하시고, 25개 교구와 각 기관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1교구위원회는 1~12교구까지 12개 교구, 81개 지역, 270개 구역으로 서울 중심으로부터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도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게 하시고(마 16:18) 신실한 교구 일꾼들을 세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구가 영혼을 구하고 양육하는 교구,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 사랑과 섬김의 교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을 구하고 양육하는 교구

첫째로 영혼을 구하고 양육하는 교구가 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전도 대상을 작정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섬김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중인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구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구역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넘쳐 서로 간에 말씀으로 세워 주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새 신자를 찾아, 육성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새로운 일꾼들을 발굴하는 데 전력하겠습니다. 국내전도를 위해 교구가 속한 지역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병행하여 교인배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더불어 단기선교에도 힘써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연합한 자체들을 확신 있는 믿음위에 서도록 도우며, 주의 일에 힘쓰는 봉사자로 육성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

둘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가 되기 위하여 모든 일꾼들이 출석수령하며 공 집회에 참석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교구모임이 말씀과 교례로 풍성하여지고, 교구모임을 지역중심으로 운영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구모임에 참석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남성도 구역모임을 활성화하고, 특히 교구 내의 청년들을 특별 관리하여 많은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중심의 교회운영방식에 따라 교회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구 내 청소년들의 출석률을 높이도록 하며, 교회학교의 장기결석자에 대한 심방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교구

셋째로 사랑과 섬김의 교구가 되기 위하여 각종 경조사에 교구식자들이 적극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전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비롯해 연로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면서 돌겠습니다. 자립봉사에도 힘을 써 식당봉사를 비롯하여 교회를 깨끗이 하고, 화단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의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 2008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구위원회를 섬기는 자회들이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마 16:24) 이럴 때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요일 3:16) 2008년에는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교구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 교회와 복음으로 더욱 든든해지길 간구합니다.

뜻을 이루시는 주님

신앙의 자유가 없고, 언어와 생김새,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두려웠다. 선교지에 오기 전에 철저한 훈련을 받아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나의 마음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다. '역시 나의 준비로는 안 되는구나!' 더욱 주님께 매달렸고 성령님만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하며 기도할 때에 초라한 웃음 입은 어린 천사를 보내셔서 학교로 인도하여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정으로 인도하셔서 어린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그 아이를 통하여 앞을 못 보는 할머니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였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았으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핍박과 위협을 각오하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치열했던 영적전쟁에서의 승리자는 우리였고, 주님이셨다. 우리는 매순간 기도하였고 연신 감사의 고백뿐이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선교를 마친 나에게 주님은 선교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매일 부름을 붙여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정기운(집사, 1교구)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선교의 경험이 많아 이번 선교도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선교에서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전에는 간혹 거부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환대하였고 복음을 영접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경계하였다. 오랜 시간 잘못된 사상에 젖었던 탓인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반응이 없었고 아예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신고경신도 투철하여 우리는 한 마을에 10분 이상을 머물 수 없을 정도였다. 매우 외진 마을이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던 우리를 신고하여 발걸음을 아쉽게 뒤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당당한 사람을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겹고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아니 유일한 것은 기도였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였고 비록 말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복음을 외치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전의 완악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들과 같은 완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며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박기숙(집사, 20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4일(금) - 1월 11일(금)	3교구	김 광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4일(월) - 1월 1일(화)	6교구	지규성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8일(화) - 12월 25일(화)	6교구	박광식

복음이 주는 참 기쁨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교 집안에서 자란 저에게 주님은 제 딸아이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갑갑한 심령을 주셨고, 참으로 열심히 주님을 찾도록 성령님은 저를 깨우치셨습니다. 저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아기가 당하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셨고, 딸의 순수한 마음과 입술을 통해 저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하지만, 딸아이는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세상과 신앙 사이의 괴리감에서 방황했고, 그 갑갑함이 더한 채 십여 년을 보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위임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진짜예요.” 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실 때 한 동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세상의 축복을 주님의 축복으로 왜곡하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바르게 살라는 윤리와 도덕을 설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임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방향하고 있던 내 영혼으로 하여금 참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큰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예수님은 찬송과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의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의 언어인 “아멘.”을 부끄럼 없이 회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김정현(한수집사, 12교구)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총헌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 온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매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놀라운 정도로 바꾸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저와 교회에 함께 나온다는 사실은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 감사!”라는 말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복된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소망할 것입니다.

이영애(성도, 9교구)

내가 있고 있던 진리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과제도 해야 하고, 피아노 연습도 해야 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합니다. 과제물과 학교행사가 많아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많고,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저녁 먹고 바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봐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날에는 친구들도 만나야 합니다. 주일 예배 전 찬양으로 드릴 찬양가사도 외워야 하고, 금요찬양집회 때 암송할 로마서도 빨리 외워야 하고, 대학부 성경공부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한 주를 보내고 좀 여유가 있었다 싶으면 토요일, 주일도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바쁘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몸이 피곤하고, 평일에도 바쁘게 주말도 바쁘다는 것이 너무 벅합니다. 감사요? 기쁨이요? 당연히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토요일과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도 당연히 감사와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토요일, 누군가의 기도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 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없는데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될 수 있으며,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펴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율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나는 나의 일이 먼저였고, 땅의 것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난 진짜가 아닌 것들에 집중했으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이제 나에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일 바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토요일, 주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갈라, 이 죄인이 감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곧 2008년입니다. 아 마 학교에서는 더 바빠질 것이고, 그 바쁜 것을 또한 나를 또 정신없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하는 내 마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일들, 나의 욕심들,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좇아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내가 되어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부여 주실 은혜를 더 소망하고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진짜가 아닌 것들에 목을 매지 말고, 진짜이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정심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제 삶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합니다.”

김현정(대력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작년 이맘 때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나에게 전도사님이 예루살렘 찬양대를 소개해 주셨다. 그 당시 나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눈물로 내 마음을 고백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깊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내가 찬양대원이 되리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하던 때였다.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의 권유에 흔쾌히 대답을 했고, 예루살렘 찬양대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 또한 혼자서 이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 구역식구에게도 권유하여 함께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제 어떠한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는지나 찬양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로 마음이 편하지 만은 없었다. 대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음과 박자가 틀렸다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자기 자리라고 매번 같은 자리를 고집하기도 하며 찬하게 지내는 다른 대원의 자리를 자기 옆에 앉아놓는 등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았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고 참심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예배에서 위임목사님이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석에 오는 순서대로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 하나님에 나 상한 마음을 아시는구나!’ 싶었다. 그후 용기와 힘을 얻어 나를 찬양대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

매주 금요일이면 구역예배를 드린 뒤 오후 2시 40분에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 타고 교회로 향한다. 우리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멀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는 내내 찬양가사를 외우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픈 무릎을 잡고 달려온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서 연약한 나의 입술로 주님께 부르는 찬양이 정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드리는 찬양인 것 같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며 그 은혜에 젖어들어 집에 오면 피곤도 물러가고 아픈 무릎도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한다. 정말로 아무 쓸모도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이강자(권사, 예루살렘 찬양대)



새가족 / 2008년 금요찬양집회 찬양

♥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와 생생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미자)

♥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들의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끝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앙생활을 통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예배를 드릴 때 밀려오는 마음의 평안이 항상 넘칩니다. (박민석)

♥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날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주일에는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역예배에도 참석합니다. (김영옥)

♥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 참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혼자 알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나직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기도할 수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숙자)

♥ 시덕여신들이 모두 충원교회에 다니십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마우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만이나 짜증스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배은주)

♥ 대우배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짚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불만했던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편안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진윤연)



는 사실, 그리고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유림)

♥ 저의 예수님은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게 믿음생활을 하게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김연금)

♥ 너무나 많은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따뜻하게 보살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므로 든든함이 생기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사는 나의 생활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보살피 주신다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광현)

♥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충원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이하기를 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쳤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조인성)

(편집국)

2008년 금요찬양집회 찬양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O! Lord, Be Merciful)

말씀과 찬양의 은혜로 풍성한 금요찬양집회가 2008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요찬양집회 시마다 한 마음을 드리게 될 찬양이 선곡되었다.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는 이미 여러 차례 광고한대로 2008년도 첫 번째 금요찬양집회(1월 4일)부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씩 드릴 찬양이다. 이 찬양은 바르렛(H. N. Bartlett)이 작곡한 것인데 원래는 '다 창조'인 금요찬양집회에 모든 성도가 부르기 쉽게 '내림 나 창조'로 편곡하였다. 전주 부분과 후주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음표가 마치 교만한 내 자신이 회개함으로 겸손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특별히 이 곡은 새 부분으로 바뀌어 있다. 첫째 부분(1~28마디)은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참 자유를 간구하고 있다. 둘째 부분(29~51마디)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깨끗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마지막 셋째 부분(52~74마디)은 죄와 사망의 율무에 얽매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참 평화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이 것만 유의하자.

*12-13마디/ 도악 진행부분으로 '참 자유'의 음절을 정확히 찬양한다.

*19마디/ "온-혜"의 이음줄 부분을 의미로 담아 부드럽게 찬양한다.

*56마디, 68마디/ 불림표부분은 음의 길이를 2-3배 늘려서 여유 있게 찬양한다.

*57-60마디/ 음계(1,2,3,4)의 반복은 영혼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인만큼 그 마음으로 찬양한다.

*61-68마디/ 더욱더 간절히 마음을 감동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

서준성(안주집사, 전임지회자)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04	전광수	16 장년1부	박순옥(1)	1957	신숙희	20 장년1부	황경분(2)
1305	김효영	4 청년1부	이보람(17)	1958	김홍	1 장년2부	백성2(20)
1306	황수영	21 고등부	황민재(21)	1959	백성2	13 소년부	최한나(1)
1937	황수연	21 대학부	김취자(21)	1960	이민비	13 소년부	김현별(22)
1938	이현별	5 대학부	박옥희(5)	1961	임세미	21 고등부	임지우(21)
1939	최정우	21 청년2부	권지현(20)	1962	이규주	24 중등1부	정혜진(24)
1940	박은진	1 청년1부	조정민(1)	1963	노민호	20 고등부	이문주(20)
1941	남지은	1 장년2부	조정민(1)	1964	김종훈	22 장년3부	박종현(14)
1942	윤지아	25 의식부	나영림(17)	1965	신상철	24 장년2부	이성진(24)
1943	이상훈	13 고등부	최용현(2)	1966	임종현	8 중등1부	신영민(11)
1944	안요셉	7 유년부	남숙자(16)	1967	선성호	20 고등부	권영희(16)
1945	안형식	9 장년2부	남숙자(16)	1968	박형준	8 중등1부	임희진(24)
1946	박현환	18 청년1부	상비희(14)	1969	박영민	20 고등부	전희애(24)
1947	양희숙	2 장년2부	정은혜(24)	1970	정유신	9 청년1부	문민연(13)
1948	이미지	9 고등부	채유진(14)	1971	최유진	11 대학부	김지은(2)
1949	김현진	9 장년2부	김현진(14)	1972	유영주	12 장년1부	김경희(5)
1950	권희진	4 청년2부	이상희(14)	1973	홍준	3 고등부	박진진(19)
1951	이주현	19 청년1부	김수현(19)	1974	김보미	5 청년1부	백현숙(4)
1952	최은영	5 청년1부	송영삼(5)	1975	김영훈	6 청년1부	이혜선(1)
1953	정주영	5 소년부	송영삼(5)	1976	유경준	20 예배대부	정은민(12)
1954	정주현	5 초등부	송영삼(5)	1977	권기태	2 장년1부	홍명희(24)
1955	박현숙	21 장년3부	박현숙(20)	1978	최유희	7 장년2부	김숙희(7)
1956	남궁은	18 청년1부	이은진(18)	1979	조명환	7 장년2부	박정숙(7)

* 충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

